

포천사회 知識人 ③⑧

대진대학교 김성렬 교수



“지역적 特性을 갖춘 보편적인 文化 추구해야 한다”

“사회에서 자기 몫을 다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계발해야”

“문학과 문화적인 일, 예술과 문화분야에서 융성해 질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고 접촉해서 문학과 문화가 질적으로 제고되고 확산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문학의 위기라지만 문학은 끝까지 갈 것이다.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문학은 문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포천지역에서도 문학이 활발해지고 좀더 질적으로 고양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열기가 일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지역문화에서 정말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편적인 문학, 문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이상은 대진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김성렬(53·사진)교수가 전공과 관련하여 포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밝힌 내용이다.

김 교수는 대구시 대신동에서 태어나 대구 남산초, 경상중, 계성고, 계명대 한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문학(현대문학)이다.

1998년 3월 1일자로 대진대학교에 부임하여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대소설 이론 및 창작을 교육하고 있다. 소설의 이해, 평가를 목표로 하는 비평과 그런 비평에 바탕한 창작을 교육하고 있는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소설창작론, 비평이론, 세계고전명작 강독 등의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김 교수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기반과 의식을 제고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특히 마흔네살에 포천문인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문학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준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전공관련하여 포천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문학이나 문화가 중요해지는 시대니까 좀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자기계발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생교육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자녀교육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포천지역은 물질적인 발전과 정신적인 계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통일시대가 되면 중요한 거점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신적·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

김 교수는 “있는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자”를 평소 좌우명으로 삼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노력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 교수는 대학교수로서 귀한 자신들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있다.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자기 몫을 다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계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

특히 능력과 소양을 갖춘 젊은이들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김 교수는 교육은 중요하고 무섭다는 느낌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등산과 테니스, 골프 등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김 교수는 학생들의 창작력을 고양하기 위해 각 학기당 1회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한다.

현역작가 중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를 초청해서 학생들과 창작에 자극이 될 수 있는 대화를 실시한다. 이밖에도 시화전, 문학답사를 통해 작품의 무대, 자각의 고양을 방문해 창작력을 자극하기도 한다.

김 교수는 사회활동경력으로 고려대, 충북대, 서울여대 등에서 강의, 고려대학교 민

족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문화일보’ 문학월평 전문위원,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등 역임, 현 이혜조 문학연구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수상실적으로는 문화일보 신춘문예 평론부문 당선, ‘창조문학’ 소설 부문 신인상 등이다.

저서로는 ▶광복직후 좌우 대립기의 문학연구(1998, 새미) ▶한국문학명작사전(1992, 한길사)이 있으며 주요논문은 ▶이광수론 ▶솔직한 폐쇄의 성취와 위험-하일지론 ▶비속한 시대의 에이런, 그 항변과 모순 ▶한국문학의 아버지 상으로 본 한국인의 아이덴티티 ▶광복직후 리얼리즘의 성취와 한계 ▶한국적 문화형의 탐색과 구원 혹은 보편에 이르기-최인훈론 ▶성스러운 아버지가 되는 근대적 성격-김승옥론 ▶신세대 문학론 ▶문예창작 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국인의 애정관 등이 있다.

김 교수는 앞으로 연구계획에 대해 비평평론집을 출간할 예정이며 한국문학에 있어 50~60년대를 근대의 형성기라고 보는 논의를 정리하여 책으로 출간할 계획이며 소설창작교재도 출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문예창작학회 기획이사, 우리어문학회 경기지역 이사로도 활동중인 김 교수는 포천신문에 보도할 내용에 대해 포천신문은 지역신문으로서 다양하고 다채로운 기사를 보도하고 폭넓게 있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문화예술분야에서 포천시가 계발하고 열기가 높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문학이나 문화적 아이템을 통해서 한국사회가 뭔가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사회의 ‘출렁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한국사회의 ‘출렁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표현 감각을 계발할 수 있는 지식인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한다. 문학이라는 것이 이성적이고 지적인 측면을 갖추고 있으니 이성과 감성을 계발할 수 있는 소재가 많다. 문화와 문화를 보다 폭넓게 접함으로써 균형 감각을 갖춘 일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균형감각 갖춘 一流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싶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안준수

경기대진TP 종합지원센터 軍동의 해결될 듯

군부대 경기대진TP 경기도 포천시 실무협약中

난항을 겪고있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군동의 可否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와 경기대진TP 관계자에 의하면 2월 중순경 군부대와 포천시, 경기도, 경기대진TP 실무자회의를 갖고 군부대 동의와 관련된 도시기본계획시설 변경 내용을 협의했다.

관련기관은 협의를 마치고 군동의 관련서류 등을 군부대 측에 전달했고, 군부대 측에서는 조만간 관련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군부대 측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게 되면 3월말까지 군동의 관련서류를 재접수하게 되고 可否결정은 4월말까지 잠정 결정하게 된다.

군동의 문제로 차공이 지연되고 있는 경기대진TP 종합지원센터는 포천시 자작동 588-4번지 일원 2만4천136㎡(7천301평)에 건축면적 2천428㎡(734평), 지하층 지상5층 건물이다.

경기대진TP 안준수 원장을 만나 군동의 문제를 비롯한 대진TP 설립취지, 사업 등을 청취했다.

▶경기대진TP 종합지원센터 군동의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해 4월 군동의를 신청했는데, 관련군부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자진 취회했다.

이후 대진대 총장과 함께 군부대를 방문해 군단장을 만났으나 역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군단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경기대진TP 설립취지와 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후 경기대진TP와 포천시, 경기도 등이 관련자료를 준비해 군부대 측과 2월 중순경 실무회의를 가졌다. 실무회의에서는 군부대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날 협의된 내용을 정식으로 군부대에 제출한 상태이고, 군부대에서는 2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줄 예정이다. 군부대 통보가 긍정적이라면 3월말까지 군동의 서류를 재접수할 예정이다.

그동안 군부대는 협의 자체를 꺼려해 왔기 때문에 진척이 없었으며, 고조홍 국회의원이 합참이나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모색했다. 또 경기도 안보지원단이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의견을 개진 해 왔고 포천시장은 군단장을 설득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경기대진TP 설립취지는

포천지역을 비롯한 경기북부의 영세공장들은 80년대 후반 상계동이 개발되면서 포천이나 양주 등지로 이전한 공장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공장들은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허가 공장난립과 영세기업의 경쟁력 하락은 기업의 활로 모색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공장이나 섬유, 염색공장들은 기술개발이나 마케팅 등을 개선해야 하는데도 임무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기대진TP는 현재 업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나 마케팅 등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대안으로 경기대진TP는 환경오염과 관련없는 가구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있다. 가구산업은 내수시장만 년간 10~20조원에 이르는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산업이다.

또 경기북부 지역은 가구의 대량소비가 급



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명품을 생산한다면 경쟁력이 있다. 가구산업은 70%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전국 어디에도 가구연구소는 없다. 경기대진TP는 올해 가구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사업을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첨단산업을 유치하기에는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이전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선행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대진TP 추진과정은

경기대진TP는 대진대 재단에서 567억원과 경기도 50억원, 포천시 50억원 등 총 667억원을 투자해 포천시 자작동 588-4번지 일원 3만1천956평에 건축면적 1만8천200평에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지식기반 첨단업종을 중점육성하게 된다.

1단계(2005-2008년)는 단지조성 및 기반확보기로 기술혁신 기반구축을 시작으로 종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기술개발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종합지원센터와 기술고도화 센터를 건립한다. 또 2단계(2009-2011년)에는 사업확장기로 다기능복합 테크노파크 구축을 비롯한 첨단산업기술통합단지 조성,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도시/벤처 인프라 확충, 첨단 기술센터가 입주하게 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커뮤니티센터와 시험생산동을 건립한다. 제3단계(2012-2014년)는 단지 성숙기로 첨단산업도시 조성, 지역혁신사업/국제교류 촉진 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 주거와 레저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단지가 조성된다.

▶경기대진TP 추진과정 애로사항은

경기대진TP 사업이 대진대학교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고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업은 지역기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대진대학교 종단이 일반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갈 바란다.

대진대 종단에서 600여억원을 투자 하고있는 만큼 명분을 살릴 수 있도록 경기도와 포천시는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시민들은 경기대진TP 사업이 대진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체와 지역사회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허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서민극 시리즈 3탄 연극 “땅끝에 서면 바다가 보인다”



서민극으로 국내1호 석사학위를 취득한 포천의 연극인 이희용씨가 서민극시리즈 3탄 “땅끝에 서면 바다가 보인다”를 3월 25일 일요일 오후 4시 대진대학교 예술관 무대에 올린다. 그동안 두 편의 서민극으로 포천시민의 마음을 적시게 했던 연출가 이희용씨는, 이 연극을 ‘감동과 해학 그리고 익살이 잘 버무려져 관객에게 웃음을 심어주고,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저마다의 애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연극’이라고 말한다. 제25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참가작품이므로 무료공연입니다.



♣ 일시 : 2007년 3월 25일 (일요일) 오후 4시

♣ 장소 : 대진대학교 예술관 소극장

♣ 주최 : 포천연극협회, 극단한내

♣ 후원 : 포천시, 포천시의회, 포천신문, 포천시문화예술봉사단, 포천예총, 포천문화원, 대진대학교연극영화학부, 작은거인산악회, 포천문인협회, 포천무용협회, 포천국악협회, 포천시자원봉사센터, 한내울포럼

스텝
 ■작가: 김태수 ■기획·연출: 이희용 ■조연출: 이규연 ■무대감독: 한대관
 ■조명디자인: 남중우 ■조명 OP: 고아라 ■음향 OP: 박경미 ■분장: 최정아
 ■무대디자인: 라유경 ■무대: 박초련 ■무대: 조윤경 ■소품: 권아름
 출연
 만 배: 이정희, 준호: 이현철, 상우: 임태순, 진숙: 신숙이, 만 두: 김승덕
 교행: 우경한, 참치: 이운학, 손님 1: 정 지두, 손님 2: 백 흥원, 손님 3: 김영관